

2009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Incident at Vichy*에 나타난  
인간의 파괴적 본성과 자각의  
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교

영 어 교 육 전 공

박 옥 자

*Incident at Vichy*에 나타난 인간의  
파괴적 본성과 자각의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tructive Human Nature and the  
Process of Self-awareness in Incident at Vichy*

2009 년 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교

영 어 교 육 전 공

박 옥 자

*Incident at Vichy*에 나타난 인간의  
파괴적 본성과 자각의 과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영 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교

영 어 교 육 전 공

박 옥 자

박옥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i>ABSTRACT</i> .....	ii
I. 서 론.....	1
II. 밀러의 사회학적 사상의 배경.....	5
III. 인간의 비도덕성과 실존적 존재방식.....	11
IV. 자아각성을 통한 재탄생.....	22
V. 결 론.....	33
참고문헌.....	36

# ABSTRACT

## A Study on Destructive Human Nature and the Process of Self-awareness in *Incident at Vichy*

By Ok-Ja Park

Faculty Advisor: Prof. Young-kwan Kim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rthur Miller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since he published *All My Sons*(1947), which deals with the antagonism between a war supplier and his son; at the same time this work criticizes wars. After that, he won the Pulitzer Prize twice through *Death of a Salesman*(1949) and *A View from the Bridge*(1955) and then he became the most noticeable playwright in America.

Miller mainl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society, and is interested in exposing social irregularities. In addition, his concerns about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made him more absorbed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Based on his own experiences, he finds topics in his neighborhood and publishes works which many people can sympathize with.

Through his early works such as *All My Sons* or *Death of a Salesman*, Miller shows that humans suffer because of the specific social system or political ideologies. Also naturally good individuals are sacrificed by powerful forces which they can't fight on their own. Therefore, he recognizes that

society is at the center of human life, and human destiny is decided by society.

However, as time goes by, a few changes come out in Miller's latter plays. In his works of the 1960s, Miller concentrates his themes on egocentric human nature based on his various experiences. He comes to find the cause of individual's mistakes in the inside world of humans, not in the outside world, such as within a social system. The reasons for the change in his point of view are due to Nazi's atrocious acts in Europe during World War II and irrational McCarthyism in America in the 1950s. Especially, these kinds of changes of Miller's point of view are shown well in *Incident at Vichy*. *Incident at Vichy* is about the Holocaust, it represents human's evil and Miller makes people recognize the universality of evil in society through this work. Each character finds evil in his inside world and despairs but overcomes every existential situation in the end.

In developing an aim of this thesis systematically, mood and theme of this play through Miller's sociologic background are examined in Chapter II. Also destructive human nature and his existential way of life, and the process which main characters find evil in the real world, recognize it, and then overcome the stern realities of life are seen in Chapter III and IV. In conclusion, this focuses on how Miller recognizes the essential meaning of evil and shows his ideas of sociologic matters.

## I. 서 론

Arthur Miller(1915 - 2005)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군수산업 경영자와 아들의 대립을 다루고 전쟁을 비판한 심리극 *All My Sons*(1947)를 발표하여 비평가와 일반 관객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후 *Death of a Salesman*(1949)과 *A View from the Bridge*(1955)로 풀리처상과 비평가 단체상을 수상하며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극작가로 간주되었다.<sup>1)</sup> 그는 미국적인 소재를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들을 발표하였으며 Eugene O'Neill, Tennessee Williams와 더불어 20세기의 대표적인 미국 극작가로 추앙받았다.

특히 밀러는 인간이 속한 사회 환경과 사회의 제반 문제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소재를 찾아내어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데 주로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회극 작가로 평가받아 왔다. 그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면서도, 인간은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에게는 변화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sup>2)</sup> 그래서 밀러는 대부분의 작품 속에서 특별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이 겪는 갈등을 심도 깊게 묘사한다. 이러한 갈등은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자기 내면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어쨌든 고통을 받는 인간들은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반드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인간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라고 생각한 밀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ociety is inside of man and man is inside of society, and you cannot even create a truthfully drawn psychological entity on the stage until you understand his social relations and their power to make him what he is and to prevent him from being what he is not.<sup>3)</sup>

---

1) Brooks Atkinson, *Broadwa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0), p. 349.

2) Enoch Brater, "Ethics and Ethnicity in the Plays of Arthur Miller," *From Hester Street to Hollywood: The Jewish-American Stage and Screen*, ed. Sarah Blacher Cohen (Bloomington: Indiana UP, 1983), p. 130.

3) Arthur Miller, "The Shadows of the Gods: A Critical View of the American Theatre," *The*



밀러는 개인과 사회를 분리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사회극을 완전한 인간극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사회적으로 연결시키는 사회극을 발표하는 것이 극작가의 소명으로 여겼다. 그는 고대 희랍극에서 제시된 사회적이며 개인적인 관점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제를 주로 추구해 왔었다.

The new social drama will be Greek in that it will face man as a social animal... the men dealt with in its scenes—the psychology and characterizations—will be more than ends in themselves and once again parts of a whole, a whole that is social, a whole that is Man.<sup>4)</sup>

모든 것이 분업화되고 물질이 우선시 되는 물질 기계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과 개인 간의 단절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집단이 주는 무게감이나 구속감을 점점 축소해 나간다. 이에 밀러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보다는 상품과 물질의 가치가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가 무시된 채 그들은 도덕적 혼돈상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만약 이러한 혼돈상태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삶의 진실을 추구하려는 자는 단지 불평분자 또는 사회 부적응자로 규정된다는 것이다.<sup>5)</sup> 그러나 밀러는 현대 사회의 가치혼돈과 그로 인한 인간들의 고통과 좌절을 비관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가치혼돈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인간이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생존의지를 통해 세계는 더욱 완벽해질 것이며, 나아가 하나의 단일체로 발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자신의 극세계에 반영하고 있다.

밀러는 비록 인간이 거대한 사회에 의해 제약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아무런 주

---

*Harper's*, 217(1958 August), p. 39.

4) Arthur Miller, "On Social Drama," *The Theater Essays of Arthur Miller*, ed. Robert A. Marti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8), p. 57

5) *Ibid.*, p. 58.

체성 없이 수동적으로 사회에 의해 형성되는 의존적 존재로만 본 것은 아니다. 인간은 사회의 영향 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주체적 존재라고 본다.

밀러는 *All My Sons*나 *Death of a Salesman* 같은 초기 작품들을 통해 인간 개인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특정한 사회체제나 이데올로기 때문으로 보았고 혼자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에 의해 천성적으로 선한 개인이 희생되는 모습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비극적인 갈등을 통해 개인을 압도해 가는 사회를 묘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는 인간 삶의 중심이 되며 개인의 운명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로 인해 영향 받는 개인의 문제는 그의 후기극으로 가면서 약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초기극에서 개인과 사회는 갈등관계로 나타나며 밀러는 개인의 잘못이 사회악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점차 그 잘못의 원인을 사회체제에서보다는 인간 자체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그가 경험하게 되는 전쟁기간동안 나치들이 유럽에서 유대인들에게 행한 잔악행위나 50년대 McCarthyism의 비이성적인 면에 기인한다. 그는 사회악을 사회체제보다는 인간과 인간본성에서 찾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밀러의 관점의 변화는 *After the Fall*(1964)과 *Incident at Vichy*(1964)에 잘 나타나 있다.

...Joe Keller violates the ethic of love and friendship. ...Willy Loman is a deceiver.... All of them are negative personae who violate the moral code and suffer. ...Quentin and Von Berg are truthful to themselves and to others. Their love and friendship to others is a kind of service and sacrifice.... They are positive personae conforming to the moral code.<sup>6)</sup>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주제의 범위를 *Incident at Vichy*로 한정 한 것은 다른 어

---

6) N. Bhaskara Panikkar, *Individual Morality and Social Happiness in Arthur Miller* (New Delhi: Milind Publications, 1982), p. 11.

편 극보다 사회학적인 사상이 이 극에 집약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극에서 밀러는 인간의 대표적인 악의 대명사인 유태인 학살을 소재로 채택하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악의 보편성을 인지시킨다. 또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제거하고, 나아가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악을 발견하여 절망하지만 결국엔 모든 실존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논제의 의도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제 II 장에서는 밀러의 사회학적인 배경을 통해 극의 분위기와 주제의식의 이해를 돕고 제 III 장에서는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이 사회악과 어떻게 관련되어 확대해 가는가를 짚어보고 제 IV 장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현실세계에서 자신들이 경험하는 악을 보편적인 사회악으로 재인식하면서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밀러의 사회학적 주제의식과 악의 본질적 의미를 어떻게 사회적인 보편성으로 인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겠다.

## II. 밀러의 사회학적 사상의 배경

1950년대 초 미국에서는 Joseph Raymond McCarthy(당시 Wisconsin 주 상원의원)와 반미국적활동 조사위원회의 공산주의자 소탕주의(일명 McCarthyism)로 인해 일련의 정치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고, 밀러와 같은 무고한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고발된 적이 있다. 밀러는 이 McCarthyism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었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가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어떻게 희생시키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그 역사의 현장들을 극 소재로 삼았다.

밀러가 1964년에 발표한 *Incident at Vichy*는 초기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한 변화가 눈에 띈다. 그는 전쟁기간 동안 나치가 유럽에서 유대인들에게 행한 잔악 행위와 50년대 McCarthyism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찰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여러 작품을 통해 이러한 성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후부터 밀러의 작품들은 사회로부터 치료 가능한 고립이라는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우주로부터 절망적인 인간의 고립에 대한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쓰인 *After the Fall*(1963), *Incident at Vichy*(1964) 그리고 *The Price*(1968)는 형이상학적 사회, 개인의 고독, 그리고 도덕적 모순이라는 ‘부조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분명히 국제적인 비극이나 개인적인 비극들은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질병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밀러의 생각에 영향을 끼쳤다. 밀러는 더 이상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환상을 가지지 않는다. 그의 등장인물들은 지금 그다지 의미 없는 삶을 지속하기 위한 가치와 한때 발견되었던 그 가치를 무턱대고 추구하다가 다시 모호함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누구나 인정할만한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의식적 타락이 이루어 졌다면 지금은 인간의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한 타락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이 없는 세계에서 원죄에 대한 밀러의 신념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Sartre의 ‘자유 의지에 대한 일관성’과 ‘초월에

대한 가능성' 혹은 '선택의 연속성'을 통한 자기 재창조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6년에 쓰인 "Forgers of Myth"라는 논문에서 Sartre의 표현을 빌려 그는 인간이 이미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항상 바뀌는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존재라고 설파하고 있다.

Each character is displayed as a free being, entirely indeterminate, who must choose his own being when confronted with certain necessities.<sup>7)</sup>

*Incident at Vichy*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비평가 Brustein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특정 유형'이나 혹은 '상징적 역할을 하는 대중적 화자'가 아니라,<sup>8)</sup> 오히려 그들은 활동적이고, 유동적이며, 우유부단한 존재이다. 직업을 제외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때때로 놀라운 것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한계에 모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한계 내에서 그들은 항상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애쓴다. 유테인들은 저항하거나 복종하지만 독일인들은 살해하거나 반란을 일으킨다. 이 희곡의 구조적 전개는 선택을 피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방법론적으로 점차 약화된다는 점에서 실존적이다. 유테인들이 끌려가고 저항할 수 있는 선택권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각 등장인물들이 고문의 실체와 불합리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인간과 부조리 사이에 보통 존재하는 이성, 문명,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문화라는 전통적인 완화책들이 점차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다.

우선, 나치는 그릇된 신념을 가진 위험한 존재이며 Sartre의 반유태주의에 대한 가장 폭력적인 인간 집단이다. 만일 나치주의의 현상이 순진한 문화인들에게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공포를 보여준 것이라면, 나치주의 그 자체는 똑같은 허무주의로부터의 탈출구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나치는 그 자신의 자유로운 상태를 받아들

---

7) Jean Paul Sartre, "Forgers of Myth," *Playwrights on Playwriting*, ed. Toby Coke (New York: Viking Press, 1960), p.117.

8) Robert Brustein, *Seasons of Discontent* (New York: Praeger, 1967), p.260.

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진실에 대한 개방성과 끝이 없고 정의하기 어려운 우연성을 그에게 보여주는 의식으로부터 일탈한다.<sup>9)</sup> Sartre가 내세운 신념은 Von Berg의 독일인에 대한 비판에서 아주 잘 표현되고 있다.

To be a good German why must you despise everything that is not German? Until I realized the answer. They do these things not because they are German but because they are nothing. It is the hallmark of the age—the less you exist the more important it is to make a clear impression.(p. 38)

허무주의로부터 도피함으로써 독일인들은 나치 이데올로기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무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절대적이며 필연적이 되어간다. 그들은 Sartre의 단편 소설 *The Childhood of a Leader*에 나오는 반유태주의의 Lucien처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그것들을 부인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확증 받을 수 있다. 게임의 환상을 지속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Genet의 *The Balcony*에 나오는 배우처럼 나치들은 자신의 개인적 필연성에 대한 환상을 확인받기 위해 유대인들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Sartre가 “If the Jews did not exist, the anti-Semite would have to invent him.”(p. 13)라고 말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반유태주의는 존재에 대한 열정, 존재에 대한 긴밀성에 대한 열망에서 나타나는 존재론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존재는 끊임없이 과거의 그와 미래의 그를 분리시키려 하는 허무주의에 의해 무가치해지기 때문에, 반유태주의는 자신의 의식을 억누르고 그릇된 신념을 신성한 것으로 바꾸려든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반유태주의는 세상을 선과 악, 즉 유대인이 말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원론적인 양면성으로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또한 이 양면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성적인 사고가 자신의 꾸며낸 거짓환상에 파고들려고 하는 것을 경

---

9) Jean Paul Sartre, *Anti-Semite and Jew*, trans. Geroge J. Becker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2), p. 18. 이하 인용은 본문 속에 AS/로 표시하고 인용문 뒤에 페이지 수만 밝힘.

계한다.

반유태주의는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존재하는 반유태주의의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의 발로이다. 반 유태인은 더 이상 고립감이나 목적이 없는 삶, 정체성 저하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방인인 유태인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자신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매달리고 있는 반 유태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감은 그렇게 함으로써 분명히 정의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경험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극에 등장한 Hoffman교수는 나치의 그릇된 신념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인종 연구’라는 과학적 결론으로 무장한 교수의 역할은 유태인이나 집시와 같은 열등한 종족들을 우수한 종족들로부터 떼어놓는 일이다. 우수한 사람으로 그는 당연히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소령에게 말한다.

I certainly would never mistake you for a Jew.... Science is not capricious, Major; my degree is in racial anthropology. In any case, we can certainly separate the gentiles by this kind of examination.”(p. 41.)

교수는 치사한 인간(salaud)이며 반 유태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디스트(sadist)이며 동시에 파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는 자신이 사악하다는 것을 알지만 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 존재이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손아귀 안에서 석방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신성화된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sup>10)</sup> 그 교수의 ‘그릇된 신념’은 ‘권리와 의무’라는 과학적 단정을 넘어서서 자신이 행하는 행위를 “I will not continue without you, Major. The Army’s responsibility is quite as great as mine here.”(p. 43)라고 강

---

10) Jean Paul Sartre, p. 50.

변하며 모든 책임감을 확산시킴으로써 교수는 스스로를 탈개인화하기를 희망한다. 그는 나치라는 환영의 집합체 속에서 익명성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비록 그는 독일인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과학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는 홀로 서있기를 꺼려하며 자기 자신의 판단결과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그들 자신도 이런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Sartre는 “The Jew remains the stranger, the intruder, the unassimilated at the heart of our society.”(*ASJ*, p. 83) 또한 “To be a Jew is to be thrown into—to be abandoned to—the situation of a Jew.”(*ASJ*, p. 88)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반 유대인이 유대인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타인에 의한 관찰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라는 Sartre식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자신의 적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의해 묘사되어진 실재인 것이다. Sartre가 말하듯이 ‘갈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라는 본질적 의미이다.<sup>11)</sup> 누군가의 의식은 그 자체는 무분별하며 객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구조를 깨닫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주관성을 필요로 한다고 그는 계속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미지대로 우리 자신을 결정한다. 그러나 두 명의 개인 사이의 대면은 결국 각자 자유를 침해하는 싸움을 낳는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주목은 불행히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존재는 Sartre식의 몰락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무감각화에 상처받기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순진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의식이며 다른 사람들의 주목 속에서 느끼는 부수적 죄의식이다. 상대방은 우리 자신에게 자연, 외부, 객관적 정체성을 부담시킴으로써 초월에 대한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진행 속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미지 안에서 고정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look’이라는 관찰은 서로 상호 교환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살벌해지고 자유를 다시 얻기 위한 절망적 노력 속에서 매서운 상대방의 눈초리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간다. 적대자들은 종종 이런 투쟁을 끝내기 위해 사디

---

11) Jean Paul Sartre, *Being and Nothingness*, trans. Hazel Barnes (New York: Viking Press, 1956), p. 49.



즘(sadism)이나 마조히즘(masochism)과 같은 그릇된 신념 속으로 몰락하기도 한다.

밀러는 현대사회의 가치부재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갈등문제를 1940~50년대의 초기 극에서 잘 표현했다. 그는 *All My Sons*(1947)를 통해 현대 미국의 왜곡된 가치관들, 일례로서 타락한 기업윤리나 가족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가 근본적인 토대가 된 미국적 사회의 분위기를 질타했다. *Death of a Salesman*(1949)에서도 잘못된 설정된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다가 희생되는 Willy Loman을 통해 미국 사회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기계 문명 속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사회극을 통해서 그릇된 사회현실 때문에 개인의 주체성이 위협당하고 파괴당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McCarthyism의 공포를 잘 표현한 *The Crucible*(1953)에서도 그는 사회의 거대한 매커니즘이 개인의 양심, 인격, 존엄성을 박탈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같은 작가의 주제의식을 다음 장에서는 작품의 예증을 통해 그의 사상적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 III. 인간의 본성과 실존적 존재방식

반 유태인은 자신의 실존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학적인 방식으로 유태인들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유태인들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비인간적인 가학행위에 자진해서 굴복해버린다. 그러나 피 가학적인 대상이 된 유태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고통을 느낀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은 생존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유태인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편하게 태도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처한 상황 안에서 유태인들은 맑고 투명한 의식을 유지하고 그 상황과 관련된 책임감이나 위험을 생각함으로써 진실하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비겁함이나 마조히즘이라는 그릇된 신념 속으로 도피함으로써 진실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부유한 상인인 Marchand는 스스로를 동료 유태인들로부터 분리시켜 자신이 유태인임을 간접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진정성이 없는 행동을 한다. Sartre의 소설 *The Reprieve* 속의 Birenshtats와 비슷하게 Marchand는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여 자신을 순수한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다른 유태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이번 신분조사에 대한 이유를 허위 신분증명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독일인들의 일상적인 조사라고 거짓말을 한다.

With so many strangers pouring into Vichy this past year there are probably a lot of spies and God knows what. It's just a document check, that's all... There are thousands of people running around with false papers, we all know that. (p. 4)

결국, 나치주의자들이 Marchand를 풀어준 것은 그가 여전히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Marchand이 그들의 관찰을 피하고자 애썼던 모든 노력들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밀러와 Sartre는 둘 다 유태인들은 결코 종교나 인종, 혹은 국적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만일 한 이교도가 그를 유태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유태인이 되는 것이다. Sartre가 “... what makes the Jew is his concrete situation, what unites him to other Jews is the identity of their situation.”(*ASJ*, p. 145)라고 말한 대목에서 이교도의 시선은 유태인이 처한 상황에 선을 긋는 것이며 그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극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Incident at Vichy*에서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유태성 안으로 빠져든다. 이 극에서 희생자들은 종교성이 짙은 한 노인을 제외하고, 자신들의 유태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다. 자신들은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종교보다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혹은 직업으로 일체화시키려고 한다. 서로가 처한 공통적인 위기에서도 일체감이라는 것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들은 동료 희생자들과 멀찍이 떨어져 있고자 한다. 그들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묶어주는 것은 나치주의자들이다. 즉 제3자가 그들을 공동체적 집합체로서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사실이다. 유태인들은 반유태주의자들의 눈길을 공동체적 고립감으로서 경험하지만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로지 공포와 고통만을 불러일으킨다.

화가인 Lebeau는 죄책감을 느끼는 마조키스트(masochist)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유태인이어서 자신의 모욕감과 절망감으로 죽음을 바라는 상태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그는 부모의 처벌을 기다리는 장난꾸러기 아이처럼 학살을 기다린다.

I don't know. Maybe it's that they keep saying such terrible things about us, and you can't answer. And after years and years of it, you...  
I wouldn't say you believe it, but... you do, a little. (p. 50.)

이런 종류의 열등감이 실제로 외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The Jew creates this complex when he chooses to live out his situation in an unauthentic manner. He has allowed himself to be persuaded by the anti-Semites; he is the first victim of their propaganda”(ASJ, p. 94.)라는 문맥에서 보듯이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한다. Lebeau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넘어서지 못하

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스스로를 마비시키고 결국 파괴되어 버린다.

Lebeau accepts the image of himself that he sees reflected in the eyes of the Other, and instead of transcending the Other's gaze, he allows himself to be paralyzed and destroyed. He relinquishes his freedom as a man in order to sink into the blissful passivity of a Thing. Like the Nazi, who solidifies himself in the role of "Superior One," Lebeau escapes his crisis by falling into the stone-like posture of "victim." His struggle ends in resigned submission.<sup>12)</sup>

자기 자신을 우월한 인간으로 일체화시키는 나치들처럼, Lebeau는 망부석과 같은 희생자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위기에서 도망친다. 그의 투쟁은 결국 묵묵히 순종하는 복종으로 끝나게 된다.

전기 기술자이며 공산주의자인 Bayard는 자신을 탈개인화시킴으로써 공포를 억누른다. 그는 Brunet처럼 Sartre식의 '신중함'을 견지하고 피할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로 인해 개인적 운명을 되찾게 되는 *Roads to Freedom*에 나오는 헌신적인 당원이다. Bayard 역시 그릇된 신념을 가진 죄인이다. Hoffman 교수처럼 그는 자신의 개인성을 집합체로 용해시키고 미래에 이론상의 프롤레타리아 반란을 위해 실존적 존재로 되돌아감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다.

Bayard: It is faith in the future; and the future is Socialist. And that is what I take in there with me. I warn you—I've had experience with these types. You'd better ram a viewpoint up your spine or you'll break in half.

Leduc: I understand. You mean it's important not to feel alone, is that it?

---

12) Lawrence D. Lowenthal, op. cit., pp. 148-49.

Bayard: None of us is alone. We're members of history.

Leduc: That we are... symbols.

Bayard: (*uncertain whether to agree*) Yes. Why not? Symbols, yes.... It helps me because it's truth. (p. 31)

대부분의 나치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 출신이라는 Von Berg의 일리 있는 주장이 Bayard의 논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의 반론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잘못 알고 있다. 공산주의적 이상주의 없이 Bayard는 “I wouldn't have the strength to walk through that door.”(p. 54.)라고 말한다. Bayard는 매력적인 인물이며, 강하고, 민첩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신중하나 역사적 결정론에 대한 그의 절대적 신념은 그의 확실성과 타협한다.

배우인 Monceau는 그가 무대에서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합성함으로써 부조리의 실재를 멀찌감치 버려둔다. 그는 위기에서 벗어나 환영 속의 역할로 도망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치주의자들은 잡아먹을 공포의 제물에 대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위험한 동물들과 같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제물의 대상이 아닌 제물을 죽이는 집행자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Monceau는 그들의 고난 속에 있는 이성의 부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모든 정황이 그와 반대라 할지라도, 나치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그렇게 괴물 같지 않으며 문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I go on the assumption that if I obey the law with dignity I will live in peace”(p. 52)라는 확신을 계속 유지한다. Leduc가 환영의 극단으로 몰았기 때문에, Monceau는 마침내 만일 세상이 미쳤다면 그가 그 광기에 굴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으며, Leduc이 내린 결론인 절망적인 말 “Your hear is conquered territory, mister.”(p. 52)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Lebeau처럼 Monceau는 가학적이며 적대적인 상대방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는 하나의 객체이다. 그의 그릇된 신념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 변경 가능한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롯된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반란을 초래하고 있

다. Lebeau 경우처럼, 반란의 역할은 희생자의 역할보다 그에게 훨씬 더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다.

이 희곡의 가장 극적인 핵심은 심리학자 Leduc과 독일 소령, 그리고 Von Berg의 도덕적 논쟁이다. 그들의 토론을 밀러는 극대사의 주된 논쟁으로 되풀이한다. 부조리하다고 생각되는 세상 속에서 사회의 책임과 개인의 파괴적인 본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Leduc에게 한 말에 따르면 독일 소령은 나치의 광기와 잔인성을 경멸하는 점잖은 인물이다. 이 악에 대항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할지 모른다. 게다가 그의 희생은 결국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Leduc에게 “We would all be replaced by tomorrow morning, wouldn't we?”(p. 53.)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Leduc를 도망치도록 도와줌으로써 얻은 것은 Leduc의 사랑과 존경이지만, “Nothing of that kind is left, don't you understand that yet?”(p. 54.)라고 반문한 것으로 보아 그 소령은 적절한 보상으로서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Leduc과 Von Berg의 대결은 이 극에서 갈등의 중심이 된다. 나치에게 발각되었을 때 아내의 치통 약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양심을 품었던 Leduc은 Von Berg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가스실로 보내질 것임을 말해주기를 원했지만 Von Berg는 이를 거절한다. 이것을 통해 Von Berg가 더 큰 동정심과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duc은 Von Berg가 계속 “작은 희망을 발견”한다는 사실에 걱정을 하면서도, Von Berg가 단순히 그가 기독교도인 이기 때문에 살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매우 씩씩해 한다. Von Berg는 “그러나 사람이 이상을 포기한다면 무엇이 남아 있을까”라고 묻는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밀러가 단순히 생존했다는 것만으로 유대인의 죽음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 생존자가 양심과 도덕성으로 갈등하게 되는 장면이다. *Incident at Vichy*는 인류 타락 후 세상에서 이기심을 초월하는 행위를 찾는 극이다. 따라서 Leduc은 Von Berg의 자살 미수를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죄의식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밀러는 특징적으로 사적인 긴장과 공적인 긴장을 엮는다. 즉 Leduc의 결혼 분쟁이 나치가 비시를

점령한 것과 관련이 있긴 하나, Leduc은 더 커다란 허무주의의 맥락에서 자신의 어두운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In one part of my mind it is not even this Nazi. I am only angry that I should have been born before the day when man has accepted his own nature; that he is not reasonable, that he is full of murder, that his ideas are only the little tax he pays for the right to hate and kill with a clear conscience. (p. 65)

그의 깨진 결혼은 아마도 문명화된 나라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메타포이다. 믿음, 사랑, 신앙은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다 침해당했으며, Leduc의 아내가 겪고 있는 치통처럼 모든 유럽이 옥신거린다. 그는 아내에게 복수를 하려는 충동을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실패해 버린 결혼생활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하나,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인식하게 되자 관계 복원의 노력이 약화되어 버린다.

소령의 그릇된 신념은 Monceau의 신념과도 아주 비슷하다. 두 사람이 함께 “There are no persons any more, don’t you see that? There will never be persons again.”(p. 54.)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결정론에 대한 굴복으로써 그들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다. 몰락한 세상에서 책임감과 윤리는 소령에게 의미 있는 단어들이 아니며, 그의 무기력한 간청은 자신의 괴로운 도덕적 충동의 탈출구에 불과하다.

소령은 본질주의에 가책을 느낀다. 그는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언제나 체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Leduc을 다음과 같이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That’s impossible. Don’t try it. There are sentries on both corners.  
(*Glancing toward the office door*) Captain, I would only like to say that... this is all as inconceivable to me as it is to you. Can you

believe that? (p. 53.)

밀러는 행동의 관점을 통해 계속 등장인물을 정의하려고 했다. 실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소령이 행하는 문화인답지 못한 행위는 그의 문화인다운 본능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Leduc는 “I’d believe it if you shot yourself. And better yet, if you took a few of them with you.” (p. 53)라고 그의 견해를 밝힌다. Leduc의 신랄한 ‘눈길’에 의해 자신의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소령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새로운 존재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다. 히스테릭한 분노를 폭발시킬 때, 그는 자신의 총구아래 유대인들을 벌벌 떨게 함으로써 반유대주의 역할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다.

Like dogs, Jew-dogs. Look at him—*indicating the old Jew*—with his paws folded. Look what happens when I yell at him. Dog. He doesn’t move. Does he move? Do you see him moving?(p. 55.)

사디즘의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소령은 유대인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희생자들의 눈을 통해서 들여다보며 불안한 이미지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는 확실한 존재감을 얻을 수 있으며 순간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소령의 가학적인 잘못된 신념은 그가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Leduc의 신념에 정면으로 도전했을 때 좀 더 강화된다. Leduc으로 하여금 자신의 순수성이 희생자로서의 역할과 우연하게 일치된 것이라고 인정하게 함으로써, 소령은 상황적인 도덕성을 합리화 시킨다. 만일 다른 유대인들을 감옥에 그대로 두고 그만을 석방 시켜 준다면 이를 거절하겠느냐고 소령이 물었을 때, Leduc은 “아니오.”라고 답한다.

Major: If you were released, and the others were kept... would you refuse? Would you refuse?



Leduc: No.

Major: And walk out of that door with a light heart?

Leduc: (*he is looking at the floor now*) I don't know. (p. 56)

도덕적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정하다는데 있다. 그리고 심지어 Leduc과 같은 고상한 사람들조차도 명예롭게 죽는 것 보다는 비굴하게 사는 쪽을 택한다. 이런 상황 하에서, 개인의 도덕적인 행동이 파괴적인 악의 연결고리에 얽혀 이렇다할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소령 같은 집행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행위를 하는 자기 희생자이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도덕적 행동이 자기 파괴력과 균형을 이룰 때와 악이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드러날 때, 체면은 몰락되고 이성적 행위는 마비된 채 세상은 도덕적 무질서 상태로 변질되어 버린다.

이 극에서 밀러는 허무주의적 관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Von Berg는 절망에 대한 밀러의 대리인으로서 이에 답하고 있다. Von Berg의 행동은 더 이상 이성적 근거가 없으며 그를 도덕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희곡의 종결 부분에 다다르자 Leduc과의 대화에서 비로소 알게 된 대학살에 공모했던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나치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불쾌감을 삭이고 만다. Leduc은 아무 죄도 없는 Von Berg에게 자신도 모르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까지는 아니더라도 혐오”라는 감정을 확인시켜주며, 그것은 평범한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막연한 추상을 보는 것 같은 죽음이나, 혹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고통인 이방인을 경멸하기 위해 뭔가를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Von Berg에게 유대인들은 죽음의 협박을 제거하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해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결코 적용시킬 수 없는 상상속의 말이라는 Heidegger의 개념을 상기시켜 준다. Leduc가 “Each man has his Jew; it is the other.” 라고 말하듯이 그리고 “And the Jew have their Jews”(p. 66)라고 강조한 대목에서처럼 그는 유대인들만의 특이한 종족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이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굶주림을 겪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범자가 되

는 것이다.

그러나 Von Berg의 희생은 희생시키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죄를 없애주며 자신의 이전의 검증받지 않은, “There are people who would find it easier to die than stain one finger with this murder.”(p. 65)라는 주장을 확신시킨다. Von Berg의 현재 행동은 Leduc의 공모자에 대한 비난을 과거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다. Von Berg는 현실적인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다. Leduc 대신에 죽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죄를 실제의 책임감으로 바꾸고 Leduc을 대신해서 유대인이 된다.

Leduc은 Von Berg의 희생으로 얻은 삶이라는 선물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속죄의 길로 변모시키는 실존적 사이클을 계속 해나가야만 한다. 그는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새롭고 상쾌하는 어떤 일을 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갈 자유가 있다. 하지만 Leduc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자신의 삶을 얻은 소령처럼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느낌을 받는다.

지성과 감정이 뒤섞인 토론은 마침내 Von Berg의 구체적 행위를 정화시킨다. 도덕적 기준이 명백히 세워져 있다. 외적 또는 도덕적 기준이 되는 잣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다른 어떤 사람의 양심에 복종해야만 한다. 이 극의 모든 등장인물들, 특히 소령은 Von Berg의 ‘시선’에 의해 평가되고 Von Berg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시선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소령의 도덕적 불감증은 계속 존재하지만, Von Berg의 냉소적인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소령은 결코 타락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기질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상대적 관계에서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을 상실했지만 이를 회복하려는 등장인물의 집념은 Sartre의 핵심적인 사상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Sartre 철학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확실성의 필요 혹은 개인의 책임감에 대한 도덕적 자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만일 밀러가 주제, 구조, 극의 역동성을 따른 것이라면 밀러의 반유대주의의 위협에 대한 의미심장한 결론은 Sartre의 *Anti-Semite and Jew*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Sartre는 그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제안을 한 반면 밀러는 그 문제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며 비관적이다. *Being and Nothingness*의 발간과 *Incident at Vichy*의 집필이 있던 21년

동안 두 작가는 철학적 입장을 서로 교감했다. 밀러는 *Being and Nothingness*에서 Sartre의 인간관계에 대한 유해한 분석에 주목했으며, Sartre는 인간 결속에 대한 밀러의 신념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편파적인 연구로 간주하는 Sartre의 반유태주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 문제에 대한 유태인의 딜레마는 사회적인 것이며 따라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Incident at Vichy*는 좌파 비평가들에게 맹비난을 받았다. Eric Mottram은 허무주의적 절망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밀러를 비난했다.

Miller can only see the present repeated endlessly as the future....  
Miller can suggest no argument for the future based on social change,  
through economic legislation, education and sexual understanding.<sup>13)</sup>

이에 대해 밀러는 다음과 같은 답을 했다. 그 자신은 확실히 자유주의자이고, 인간이 악을 저지르게 된 것은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유토피아’에서도 인간의 악이란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개혁의 효율성에 대한 그의 믿음이 점차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글을 쓰는 Tom F. Driver는 ‘보편적 도덕의 구원’에 대한 밀러의 불신에 대해 비평했으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한 그의 실패에 대해서도 비난했다.<sup>14)</sup> 밀러는 *Incident at Vichy*에서 교훈을 주려고 했다. 만일 그가 자신의 부수적 악에 동조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Von Berg가 그렇게 했듯이 자신의 죄책감을 책임감으로 맞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밀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서 적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 되기란 너무 어렵다. 그것은 비극적이며 치명적인 맹점이다....”<sup>15)</sup>라고 인정한다. Driver는 밀러의 존재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13) Robert W. Corrigan and Englewood Cliffs, ed., "Arthur Miller: The Development of a Political Dramatist in America," *Arthur Mill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9), pp. 55-6.

14) Robert W. Corrigan, ed., "Strength and Weakness in Arthur Miller," *Arthur Miller*, p. 65.

15) Leonard Moss, "Our Guilt for the World's Evil," *Arthur Miller* (New York: New Have, 1967), p. 97.

There being no objective good and evil, and no imperative other than conscience, man himself must be made to bear the full burden of creating his values and living up to them. The immensity of this task is beyond human capacity... to insist upon it without reference to ultimate truth is to create a situation productive of despair.<sup>16)</sup>

그러나 이런 도덕적 의무감은 Von Berg가 그것을 이행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은 아니다. 밀러가 이 극을 실제 이야기에 기초해서 썼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밀러의 도덕적 의무감을 확실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Lebeau와 Monceau 같이 자신의 과멸에 스스로 굴복해버린 유대인 희생자들에 대한 밀러의 공격은 신랄하다. 특히 밀러가 점령당한 유럽에서 망명한 유대인들의 어려운 고난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극의 폐쇄적인 강렬함 속에서 그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가상 등장인물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없애버리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운명의 갈등을 제공해준다. 스스로 선택한 험난한 필연성은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밀러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또한 모든 인류를 위해 선택한다는 Sartre식 도덕성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밀러는 점령기 때 프랑스에서 그가 느꼈던 유명한 Sartre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극화하고 있다. “When the choice each of us made of our life was an authentic choice because it was made face to face with death.”<sup>17)</sup> 라는 Sartre의 유명한 구절을 이 극의 핵심적인 주제로 극화한 것처럼 보인다. 인간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항상 정도가 아닌 것은 “no”라고 자신의 고문자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함을 Von Berg는 토론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다.

---

16) Driver, op. cit. p. 66.

17) William Barrett, ed., "Jean Paul Sartre," *On Contemporary Literatur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4), p. 557.

## VI. 자기희생을 통한 자각의 완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Von Berg는 Leduc와 끈질긴 토론 과정에서도 자기주장과 개성을 굽히지 않고 사르트르적인 이념에 함몰된 특이한 인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반복된 사르트르적이고 프롤레타리아적인 이념논쟁 및 집요한 Leduc의 설득으로 변화의 여지가 극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감지된다. 여기서 Von Berg의 성격은 평면적 성격에서 원형적 성격으로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밀러는 *Incident at Vichy*에서 파시즘(fascism)과 홀로코스트(holocaust)에 대한 가장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반응을 담아내고 있다. 이 극의 중심 사상은 자매편인 *After the Fall*의 주제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 that when we live in a time of great murders, we are inhabiting a world of murder for which we share the guilt.... We have an investment in evils that we manage to escape, that sometimes those evils that we oppose are done in our interest.... By virtue of these circumstances, a man is faced with his own complicity with what he despises.<sup>18)</sup>

이 극은 1942년에 독일의 인종 법에 따라 Vichy정부의 용의선상에 올라있는 유대인들을 검거한 내용을 극화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에 6명의 남자와 한 소년이 강제수용소로 옮겨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이 연극은 그들의 신분증명서가 가짜라는 것을 알지만 죽음의 수용소에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심, 불안, 자기과신, 기만 등을 기록하고 있다.<sup>19)</sup>

June Schlueter는 *Incident at Vichy*의 등장인물들과 Samuel Beckett의 *Waiting for Godot*에 나오는 두 등장인물을 비교한다. 그들은 강제수용소에서 기다

---

18) Richard I. Evans, *Psychology and Arthur Miller* (New York: Praeger, 1981), p. 74.

19) June Schlueter and James K. Flanagan, *Arthur Miller* (New York: Frederick Ungar, 1987), p. 102.

리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고, 방어 기제로 자신들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환상에 빠지게 된다. 유괴된 사람들은 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유가 곧 도래하는 척한다. 죄수들이 개별적으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는 옆방으로 소환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대체하려고 한다.<sup>20)</sup>

이 극은 우리의 책임, 그리고 우리가 악과 타협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이다. 그러나 이런 극적 구조는 *After the Fall*과 *Playing for Time*과 같은 홀로코스트를 다룬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 감지할 수 있는 의식의 흐름 기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After the Fall*에서는 한 남자의 정신을 통해서, *Playing for Time*에서는 한 여자를 통해서 도덕성을 규정한 반면에, *Incident at Vichy*에서는 과거장면으로의 순간적 전환과 독백으로, 밀러는 Quentin의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개인적 전망에서부터 시작하여 점령 하에 프랑스 비시정부의 역사적 심판으로 확대된다. *Incident at Vichy*는 역사적 사실에 토대를 둔 것이며, 역사, 기억, 인간 행동의 도덕적 결과에 집착하는 작가에게, 어느 정신분석학자가 해준 이야기를 밀러는 극화시켰다. 실제로 그가 배우들에게 나치 친위대원들이 누구인지를 회상시켜야만 했을 때, 런던에서의 실제 연극공연은 그에게 기억과 역사의 취약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고 한다.<sup>21)</sup> 밀러가 실제 알고 있던 정신분석학자는 전쟁 기간 동안 가짜 서류들 때문에 비시에서 발각되었고, 그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 덕분에 목숨을 구했던 사람이다. 유대인을 색출하기 위한 서류와 신체검사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용의자들 사이에 그 미지의 기독교도가 대신 줄을 섰던 것이다. 이 연극의 두 번째 역사적 근원은 밀러 주변 가까이에 있었다. 고대 오스트리아 귀족 혈통을 가진 최고령 생존자이자 밀러의 아내 Inge Morath의 친한 친구인 Josef von Schwarzenberg 왕자는 나치에 협력할 것을 거절하였고, 그로 인해 전쟁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었다. 밀러는 Josef von Schwarzenberg가 파시즘에 직면했을 때 자기 희생적인 도덕적 순결함을 구현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매혹 당했으며 그를 바로 *Incident at Vichy*에 나오는 왕자 Von Berg의 모델로 삼았다.

---

20) Ibid., p. 102.

21) *Timebends*, p. 540.

Lawrence Lowenthal은 밀러의 등장인물들이 단순한 ‘유형’이거나 ‘상징적 역할을 가진 연설가’라는 Robert Brustein의 주장을 무시한다. 그는 오히려 등장인물들을 역동적이고, 변덕스러우며,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존재들, 즉 ‘뒤통에 걸린 자들’로 본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의 직업을 제외하고는 그들에 대해 아무 것도 우리는 모른다. 그들은 모두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으나 이 범위 내에서 그들은 항상 자유롭게 행동한다.

The Jew can resist or submit; the German can murder or rebel.  
Indeed, the structural movement of the play is existential in that the pressure to choose - to defy or cooperate with the Nazis - becomes inevitable.<sup>22)</sup>

밀러가 묘사한 고통의 유일한 해결책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Incident at Vichy*는 우리가 결정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비평가들은 *Incident at Vichy*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작품의 은유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운이 좋게도, 극을 연출하는 밀러의 오랜 친구이자 그룹 극장의 창시자인 Harold Clurman은 전쟁 기간 동안의 프랑스 비시 정부와 관련된 비도덕성에 관한 글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악(evil)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Boris Aronson에게 은유적 무대를 만들도록 충고하였다. 밀러는 자신의 더 깊은 관심을 1964년 뉴욕 타임즈의 Barbara Gelb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혔다.

---

22) Lawrence D. Lowenthal, "Arthur Miller's *Incident at Vichy*: A Sartrean Interpretation," *Critical Essays on Arthur Miller*, ed. Martine, (Boston: G. K. Hall & Co., 1987), pp. 143-54.

The occasion of the play is the occupation of France but it's about today. It concerns the question of insight - of seeing in ourselves the capacity for collaboration with the evil one condemns. It is a question that exists for all of us - what, for example, is the responsibility of each of us for allowing the slums of Harlem to exist? Some perfectly exemplary citizens, considerate of their families and friends, contributing to charities and so forth, are directly profiting from conditions like that.<sup>23)</sup>

그는 나치즘의 잔혹성을 어디에나 편재하는 사회적 불의로 간주하며, 이 극에서 그 믿음을 원형적인 상황으로 변형시켰다. 우리는 죽음의 가능성, 실지로 죽음의 불가피성에 직면해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지켜본다. 등장인물들은 각자 자신의 생존전략을 고안해 내고 자신만의 이상적 신념에 의존한다. 전기기술자인 Bayard는 기업이 노동계급을 착취한다고 믿는 마르크스주의자이다. 화가인 Lebeau는 그의 예술에서 부조리하고 무시무시한 현실보다 발명을 선호하는 것처럼 상상력을 믿는 사람이다. 배우인 Monceau는 가짜 신념이 그들을 지탱해 준다고 주장한다. Von Berg 왕자는 개인의 책임이 도덕과 관계가 없는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자신의 삶에 일관적인 행동을 유지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냉소주의자인 Leduc은 Von Berg의 이상주의를 불신하고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덕과 관계가 없다고 믿는다.

여느 때처럼 밀러는 항상 공적 중요성을 가진 개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Von Berg가 왜 60년대를 대표하는 영웅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

23) Barbara Gelb, "Question: 'Am I My Brother's Keeper?,'" *The New York Times*, 29 November 1964, section 2, pp. 1-3.



That faceless, unknown man would pop up in my mind when I read about the people in Queens refusing to call the police while a woman was being stabbed to death on the street outside their windows. He would form himself in the air when I listened to delinquent boys whose many different distortions of character seemed to spring from a common want of human solidarity. Friends troubled by having to do things they disapproved of brought him to mind, people for whom the very concept of choosing their actions was a long forgotten thing. Wherever I felt the seemingly implacable tide of human drift and the withering of will, in myself and in others, this faceless person came to mind. And he appears most clearly and imperatively amid the jumble of emotions surrounding the Negro in this country, and the whole unsettled moral problem of the destruction of the Jews in Europe.<sup>24)</sup>

밀러에게 있어 McCarthyism의 광기처럼 홀로코스트의 공포는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는 과거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1945년에 그의 소설 *Focus*에서 그는 인종 차별이 무지에서 생겼으며, 개인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985년의 홀로코스트 연극인 *Playing for Time*처럼, *Incident at Vichy*는 대량 학살을 자행한 표면상의 문명국과 자신들의 자유를 권위에 기꺼이 종속시키려는 자유분방한 개인들의 모순을 다루었다.

---

24) Arthur Miller, "Our Guilt for the World's Evil," *The New York Times Magazine*, 3 January 1965, pp. 10-11.

Some 6,000 SS men did duty in Auschwitz during its four years of operation, and not one is known to have refused to do what he was told.... [The Germans] are being called on to be free, to rebel in their spirit against the age-old respect for authority which has plagued their history. 25)

그러나 C. W. E. Bigsby는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American Drama*에서 비록 그 연극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상징으로 보게 만드는 과정에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Incident at Vichy*의 등장인물들이 바로 그들의 배역이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주제이기도 하고 방법론이 되기도 하는 지나친 단순화는 위험한 것이다.

만일 *Incident at Vichy*가 논쟁적인 연극을 만들 수 있는 밀러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이 작품은 또한 그가 상징적 행동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예시한다. Hoffman 교수가 늙은 유대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을 때, 교수는 깃털 꾸러미가 거의 다 찢어질 때까지 그것을 잡아당긴다. 이 아이디어는 밀러를 감동시켰던 체코 슬로바키아의 한 영화에서 얻은 것이다. *The Shop on Main Street*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죽기 위해 모인 보헤미아 지방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그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이 떠난 후 깃털들이 마을 광장에 둥둥 떠다니는 장면이 있다. 밀러에게 있어서 새의 깃털은 피난민의 유일한 재산인 침구를 대표하게 되고, 그러므로 둥둥 떠다니는 깃털은 뿌리째 뽑힌 가정생활에 대한 메타포가 된다. 그가 말한 것처럼,

once they're released, you can't capture them any more. And there's a pathetic quality to that: the fact that the old guy's clutching what to

---

25) Ibid., p. 48.

our minds would be a practically valueless bag of nothing, of air. It's his identity, though.<sup>26)</sup>

Steven Centola와 같은 몇몇 비평가는 그 깃털을 박해를 당했을 때 수동적이거나 혹은 체념한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무력한 종교나 가치체계로 보는 반면에, 밀러는 늙은 유태인이 종교적 체계를 초월했다고 주장한다.

He's got one foot in heaven. He knows that this is the ancient persecutor, the face of hell, that comes in every generation, and this is his turn with him... And he's praying against it... he's got ... one eye on God, who's reaching out His hands to him. <sup>27)</sup>

늙은 유태인의 눈이 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밀러가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른 모든 작품들에서 그렇듯이 *Incident at Vichy*에는 이곳이 신이 없는 우주라는 강한 감정이 들어 있다. 그의 등장인물들은 공포와 압박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성스러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만 했다. 더욱이, 밀러는 뿌리째 뽑혀 버린 가정생활의 상징을 사악한 나치의 웃음소리와 병치시킨다. 갑작스레 터진 비도덕적인 웃음소리는 전체 연극을 강조하게 되고,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등장인물이 언급하는 모든 것은 나치 점령에 대한 반응임을 상기시킨다.

별개의 논쟁들로 이루어진 이 연극에서 결말 장면은 특히 변론적인 대사로 되어 있다. Von Berg가 그의 친구인 Leduc에게 떠나고 싶다고 말하자, Leduc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26) Roudané, *Conversations*, p. 358.

27) Ibid., p. 358.

It is not you I am angry with. In one part of my mind it is not even this Nazi. I am only angry that I should have been born before the day when man has accepted his own nature; that he is not reasonable, that he is full of murder, that his ideals are only the little tax he pays for the right to hate and kill with a clear conscience. (p. 48)

*After the Fall*처럼 *Incident at Vichy* 주인공들이 악과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수용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Leduc은 다른 집단을 사회 주류에서 추방하는 것이 생존방식의 당연한 귀결로 여기고 있다.

Jew is only the name we give to that stranger, that agony we cannot feel, that death we look at like a cold abstraction. Each man has his Jew; the black, the yellow, the white, it is the other. And the Jews have their Jews. And now, now above all, you must see that you have yours - the man whose death leaves you relieved that you are not him, despite your decency. And that is why there is nothing and will be nothing - until you face your own complicity with this ... your own humanity. (p. 48)

Leduc은 Von Berg의 사촌인 Baron Kessler가 의과대학에서 다른 모든 유태인 의사들을 제거하는 것을 도왔다는 사실, 즉 Von Berg가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사실을 Von Berg에게 상기시킨다.

Baron Kessler is a Nazi. He helped to remove all the Jewish doctors from the medical school. You were aware of that weren't you?.... Your

cousin. I understand. And in any case, it is only a small part of Baron Kessler to you. I do understand it. But it is all of Baron Kessler to me. When you said his name it was with love; and I'm sure he must be a man of some kindness, with whom you can see eye to eye in many things. But when I hear that name I see a knife.(p. 67)

Leduc은 Von Berg에게 “It's not your guilt I want, it's your responsibility.”(p. 67)라고 소리친다. 극의 끝부분에 열려져 있는 문은 Von Berg가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어떠한 인류든지 구조할 수 있는 통로이며, 그리고 Leduc의 손에 자신의 자유통행권을 들이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순간 문이 열리고 왕자는 안쪽 방으로 소환되고 그는 몇 분 후에 통행권을 받아 나온다. 그는 그것을 결혼반지와 함께 Leduc의 손에 쑤셔 넣는다.

Von Berg: Take it! Go! Number nine Rue Charlot. Go.

Leduc: What will happen to you?

Von Berg: Go, go!

Leduc: I wasn't asking you to do this! You don't owe me this!

Von Berg: Go! (p. 69)

간수가 복도 끝에서 나타나자, Leduc은 그에게 통행권을 주고 사라진다. 교수는 다음 용의자를 부르기 위해 들어왔다가 Von Berg를 보고 비상벨을 누르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소령은 안으로 달려 들어와서 “번민과 분노의 시선을 띄며,” 자신의 두 주먹을 짹 움켜쥐고는 Von Berg와 대면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영원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음을 느끼며,” 그곳에 서 있다. 네 명의 새로운 죄수들이 의자에 앉도록 안내받고 그들은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

고, “두 명은 서로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극은 끝난다.

이와 관련된 평가는 일반적으로 호의적이었지만, 일부 평가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상징적 기법을 비난했다. Edward Murray가 그 말에 대한 답변으로 Leduc, Von Berg, 그리고 소령은 상당히 성숙된 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28)</sup> 논쟁과 반론이 거듭되면서, Leduc와 Von Berg는 기존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밀러는 새로운 죄수들의 도착으로 마지막의 구세주의적인 어조를 약화시킴으로써 극의 대사가 지나치게 신파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한다. 더욱이, Leduc가 Von Berg의 자유통행권을 받음으로써 단순한 긍정적인 결말이 안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Leduc은 Von Berg의 생명의 대가로 생존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on Berg의 결정은 긍정적이며, 밀러에게 있어 전쟁은 도덕적 강박관념과 같은 자유로운 이상들을 재확인할 필요를 창출해 내었다. 따라서 등장인물은 단순한 플롯의 한 특징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가 된다. C. W. E. Bigsby가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American Drama*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일 개인이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을 졌었다라면 그 개인은 부조리주의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을 거부했을 것이고, 개인주의와 이상주의를 파괴했던 전쟁 중의 사건들로 인해 거부되었던 자치권과 사회적 중요성을 부여받았을 것이다. 개인이 보여주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밀러의 강조는 그의 비극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있다. *Incident at Vichy*는 밀러의 초기 비극 작품들의 극적 장면을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이 연극은 중심적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Von Berg의 무력함에 대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의 비극적 실존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연극은 비극적 영웅이 실존의 법칙 가운데 하나를 파괴하거나 혹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도덕적 세상을 제공함으로써, ‘실존의 숨겨진 계획’을 조명하는 전통적 비극

---

28) Edward Murray, *Arthur Miller, Dramatist* (New York: Ungar, 1967), p. 170.

의 일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밀러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비극은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등장인물의 총력적인 강박관념의 결과에 관한 것이다.

Von Berg는 이 희곡에서 유일한 승리자에 속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순간을 그가 맞았으므로 순교자로서의 그의 존재는 영구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의 행위가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는 이전의 우발적인 세계에 도덕적 일관성을 부여한다.

Von Berg is the only triumphant character in the play since death will cut him off at his highest point and permanently fix his essence as martyr. His act frees him from alienation and imposes a moral coherence upon his previously contingent world.<sup>29)</sup>

Von Berg의 영웅적 행동은 스스로 그들의 박해자에게 복종하고 희생자가 되기를 선택한 다른 인물들과 극적으로 대조된다. 그러나 갖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한껏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하는 Von Berg와 Leduc의 인간관계는 주어진 한계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유로운 존재로서 개성과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중요한 관계를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실존적 주체로서 진정한 자아각성을 통해 개인의 존재방식을 재설정함으로써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성취할 수 있다는 시대적 영웅의 참모습으로 재탄생한다. 밀러는 이 극에서 이러한 유형을 과감히 창조하여 아메리칸 드림의 새로운 인물상을 제시했다고 본다.

---

29) Lawrence D. Lowenthal, Arthur Miller's *Incident at Vichy: A Sartrean Interpretation*, "Arthur Miller-New Perspectives", ed. Robert A. Marti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2), p. 151.

## V. 결 론

밀러는 부조리한 현대 미국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꾸준히 파헤쳐왔다. 그가 활동하던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돈과 걱정의 시대였고 그 속에서 그는 개인과 사회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통하여 인간이 스스로 각성하게끔 하였다. 이렇듯 밀러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극 속에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갈등의 근원은 바로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서 기인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밀러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자아의식이 결여된 인물들이고 이들의 성격은 고뇌와 인식의 과정을 거친 후 책임의식을 지닌 새로운 인물로 성숙하게 된다. *All My Sons*의 Joe Keller, *The Crucible*의 John Proctor, *After the Fall*에 나오는 Quentin, 그리고 *Incident at Vichy*의 Von Berg 등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난폭한 본성과 악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결정한다.

비록 *Incident at Vichy*에서 Von Berg의 자아인식 과정은 Quentin처럼 스스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매우 지적이면서 이미 악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정신학자인 Leduc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지만, Quentin과 Leduc보다 Von Berg의 자아인식의 강도는 더 강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자아인식 후 곧바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마침내 하게 된다. Leduc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살인에 대한 충동과 극도의 잔인함, 이기심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순수성을 주장하는 Von Berg에게 나치주의자인 사촌과의 연관성을 언급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악과 타협하고 있었는지를 일깨워준다. 그로 인해 Von Berg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멸해오던 악과 어떤 방식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결국 그는 악과의 타협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되며 종래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밀러는 초기극을 통해서 개인의 잘못과 과실이 사회악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사



실을 보여주었으나 *Incident at Vichy*와 같은 후기극으로 가면서 약간의 변화를 꾀한다. 개인의 잘못의 원인을 점차 사회체제에서보다는 인간 자체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다.

밀러는 시간과 공간상으로 멀리 존재하는 역사적 사건을 개인적 죄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주인공의 자기반성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악의 사회적 보편성을 보여준다. 즉 현대인 역시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는다면 타인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 기꺼이 고개 돌릴 수 있는 이기심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과거 유대인 포로수용소를 건설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밀러는 유대인 포로수용소의 예를 통해 Von Berg가 인간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잔인성(bestiality)을 직시하게 한다. Leduc은 Von Berg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타인의 파멸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결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멸과 은밀히 타협하는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공포는 더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한다.<sup>30)</sup>

밀러는 후기 극을 통해 초기 극에서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인간관을 보여 준다. 인간의 순수성에 대한 고집은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고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인간의 본성에 존재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본성까지를 직시하는 용기와 사랑의 힘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것이다. 밀러는 후기극들을 통해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악을 수용한 후에도 결코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여전히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는 낙관주의적인 면을 제시한다.

*Incident at Vichy*에서 Von Berg가 개인과 사회의 불완전성을 인정함으로써 절망과 비관주의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보다 발전적인 삶을 획책하는 지혜를 터득하도록 일깨워 주고 있다. 게다가 밀러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개인의 악과 사회의 악을 수용하여 지혜롭게 조율한다면 인간

---

30) Arthur Miller, "The Shadows of the Gods", *The Theater Essays of Arthur Miller* (New York: The Viking Press), p.187.

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실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삶의 의미와 희망의 가능성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Von Berg로 하여금 자각하도록 일깨워주고 있다.

## 참 고 문 헌

### I. *Primary Source:*

Miller, Arthur. *Incident at Vichy*. New York: Penguin Books, 1985.

### II. *Secondary Sources:*

Atkinson, Brooks. *Broadwa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0

Balakian, Janet. 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rthur Miller*, ed. Christopher Bigsb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Barrett, William. "Jean Paul Sartre," *On Contemporary Literatur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4.

Barbara, Gelb. "Question: 'Am I My Brother's Keeper?,'" *The New York Times*. ed. Roundane. 29 November, 1964.

Brater, Enoch. "Ethics and Ethnicity in the Plays of Arthur Miller," *From Hester Street to Hollywood: The Jewish-American Stage and Screen*. ed. Sarah Blacher Cohen. Bloomington: Indiana UP, 1983

Brustein, Robert. *Seasons of Discontent*.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7.

Clurman, Harold. "Introduction," *The Portable Arthur Miller*. ed. Christopher Bigsby. New York: Penguin Books, 1995.

Corrigan, Robert W. and Englewood Cliffs. ed. "Arthur Miller: The Development

of a Political Dramatist in America," *Arthur Mill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1969.

Evans, Richard I. *Psychology and Arthur Miller*, New York: Praeger, 1981.

Flanagan, James K. & June Schlueter. *Arthur Miller*, New York: Frederick Ungar, 1987.

Hazel Barnes, Hazel. trans. *Being and Nothingnes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6.

Griffin, Alice. *Understanding Arthur Miller*.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6

Lowenthal, Lawrence D. "Arthur Miller's Incident at Vichy: A Sartrean Interpretation," *Arthur Miller-New Perspectives*. ed. Robert A. Marti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2.

\_\_\_\_\_. "Arthur Miller's Incident at Vichy: A Sartrean Interpretation," *Critical Essays on Arthur Miller*. ed. Martine, 1985.

Miller, Arthur. "Introduction to the Collected Plays," *Arthur Miller's Collected Play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7.

\_\_\_\_\_. "Our Guilt for the World's Evil," *The New York Times Magazine*, 3 January 1965.

\_\_\_\_\_. "On Social Plays," *The Theater Essays of Arthur Miller*.  
ed. Robert A. Marti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8.

\_\_\_\_\_. "Strength and Weakness in Arthur Miller," ed. Robert  
Corriga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87.

\_\_\_\_\_. "The Shadows of the Gods," *The Theater Essays of  
Arthur Miller*.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8.

\_\_\_\_\_. *Incident at Vichy*. New York: Dramatists Play Service, Inc. 1964.

\_\_\_\_\_, "The Shadows of the Gods: A Critical View of the American  
Theatre," *The Harper's*, 1958.

\_\_\_\_\_.  
Martine, James J. *Critical Essays on Arthur Miller*, Boston: G. K. Hall & Co., 1979.

Moss, Leonard. quoted. "Our Guilt for the World's Evil," *Arthur Miller*. New  
Have, 1967.

Murray, Edward. *Arthur Miller, Dramatist*, New York: Ungar, 1967.

Sartre, Jean Paul. "Forgers of Myth," *Playwrights on Playwriting*. ed. Toby  
Cok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0.

\_\_\_\_\_. *Anti-Semite and Jew*. trans. George J Becker.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2.

\_\_\_\_\_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	학 번	20068033	과 정	대학원
성 명	한글: 박 옥 자      한문: 박 옥 자      영문: Park Ok Ja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평화맨션 3동 1105호				
연락처	016-514-0201      E-MAIL: okja98@hanmail.net				
논문제목	<p>한글 : <i>Incident at Vichy</i>에 나타난 인간의 파괴적 본성과 자각의 과정에 관한 연구</p> <p>영문 : A Study on Destructive Human Nature and the Process of Self-awareness in <i>Incident at Vichy</i></p>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 년 2 월 일

저 작 자 : 박 옥 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